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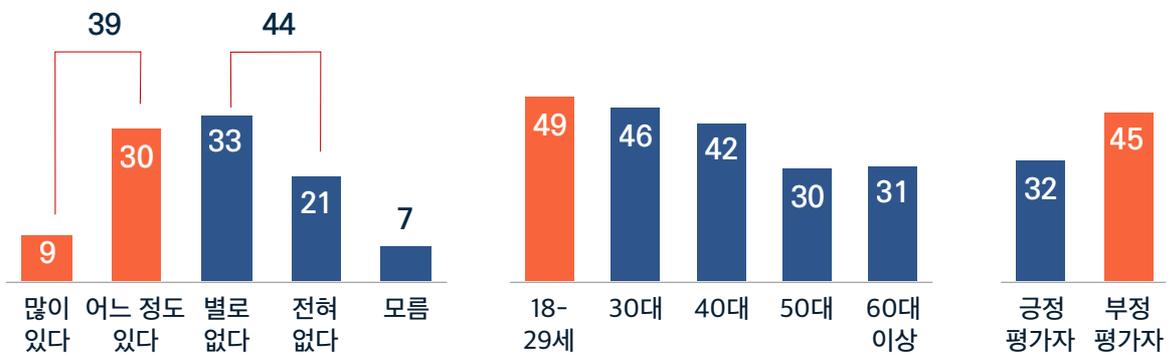
우리 국민 39% 자신이 코로나19에 ‘감염될 가능성 있다’고 인식함

- 한국갤럽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, 응답자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질문한 결과, ‘있다’(매우+어느정도) 39%, ‘없다’(전혀+별로) 44%로 10명 중 4명 정도가 자신의 감염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남
- 자신의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뚜렷한데 특히 대통령 직무에 부정 평가자가 긍정 평가자보다 높아,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

[그림] 자신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(%)

[그림] 자신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‘있다’ (매우+어느정도, 연령별) (%)

[그림] 대통령 직무 평가 (긍정 vs 부정)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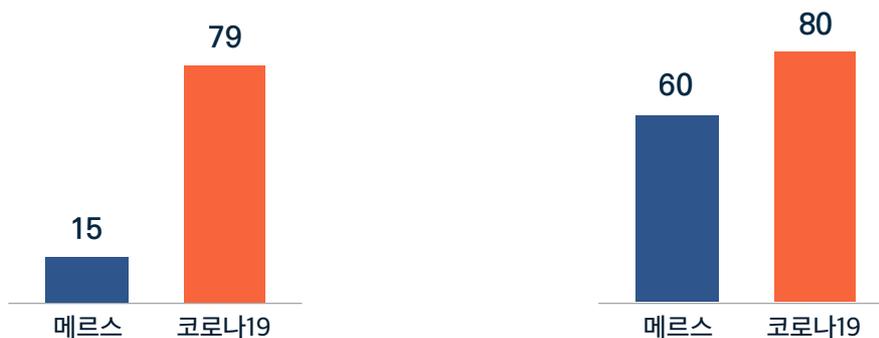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한국 갤럽, '데일리 오피니언 제 388호', 2020.02.13. (전국, 만 18세 이상, 1,001명, 전화 면접 조사, 2020.02.11~13)

● 메르스 때보다 마스크 착용률, 손 세척률 훨씬 높음

- 이번과 메르스 때(2015년)의 마스크 착용과 손 세척 정도를 비교한 결과, 마스크 착용률은 메르스 때는 15%, 이번 코로나19 때는 무려 79%로 큰 차이를 보였음
- 또한 평소보다 손을 더 자주 씻는지 ‘손 세척 정도’를 물은 결과 메르스 때는 60%, 이번 코로나19 때는 80%로, 역시 이번이 메르스 때보다 손 세척률이 더 높게 나타남

[그림] 마스크 착용 경험(메르스 vs 코로나19) (%)

[그림] 손 세척 경험(메르스 vs 코로나19) (%)



*자료 출처 :한국 갤럽, '데일리 오피니언 제 387호', 2020.02.06. (전국, 만 18세 이상, 1,000명, 전화면접조사, 2020.01.04~06)

2

코로나19 이후, 가족에 대한 '관심'과 타인에 대한 '혐오' 동시에 늘어남

- 코로나19 발생으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았는데, '내 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'는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3명 중 2명 정도(66%)로 나타남
- 반면 '중국인들이 싫어졌다'는 부정적 인식도 46%로 비교적 높음
- 또한 5명 중 3명은 '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을 듣거나 본 적 있다'고 응답함
- '코로나19로 인해 일상 생활에 변화가 없다'는 응답은 13%에 불과해, 코로나19가 우리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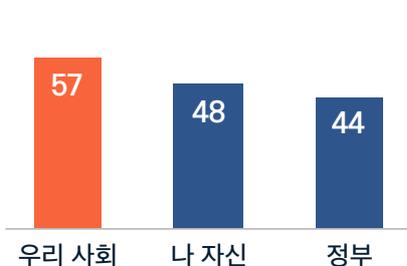


*자료출처 : 엠브레인, '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식 조사', 2020.02.07.(전국, 만 19-59세 성인 남녀, 2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0.1.3-2.2)
 ** 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/서울대 보건대학원 윤명순 교수팀, '신종 코로나, 감염도 두렵지만... 주위 비난 더 무서워', 2020.02.07
 (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207043100017)

● 코로나19 대응, '정부'보다 '우리 사회' 전체가 잘 대응한다는 인식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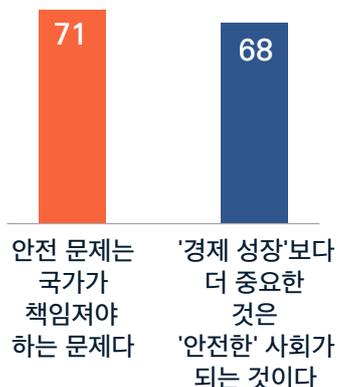
- '메르스 때 대비 이번 코로나19 때 대응 수준 평가는 '우리 사회'(57%), '나 자신' (48%), '정부'(44%) 순으로 '잘하고 있다'고 응답함
-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'국가 책임'이라고 응답하였고, 68%가 '경쟁 성장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'고 응답해, 국가의 안전 책임에 대해 국민적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메르스 대비 코로나19 대응수준 평가 ('잘하고 있다' 응답률) (%)

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/서울대 보건대학원 윤명순 교수팀, '신종 코로나, 감염도 두렵지만... 주위 비난 더 무서워', 2020.02.07 (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207043100017)

[그림]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(동의율) (%)



*자료출처 : 엠브레인, '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식 조사', 2020.02.07 (전국, 만 19-59세 성인 남녀, 2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0.1.3-2.2)